
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26)

후지보의 “가프리스” - 코머 노일의 자연스러운 슬럽으로 만들어

후지보에서 이집트 면의 코머 노일(comber noil)로 된 슬럽(slub)으로 만든 소재가 얼룩 실 “가프리스”이다. 컴퓨터로 만든 인위적인 슬럽과 구분하여, 이집트 면의 낙면으로 되어 있는 슬럽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여 내추럴 슬럽(natural slub)이라고 하고, 자연적인 것이므로 우아하다고 하여 엘리건트 슬럽(elegant slub)이라고도 부른다.

이 원사로 천을 만들면 면으로 마의 표정을 보여주는 천의 발이 반듯하고 고운 소재라는 느낌을 받으며, 천의 훌륭한 태가 엘리건트라고 할 만한 이유를 알게 된다. 일반적으로 슬럽이라면 롱 슬럽(long slub)이 대부분인데 “가프리스”는 슬럽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.

“가프리스”는 면 100%로서 10수, 20수, 30수 등을 링 정방기로 뽑고 있는데, 낙면인 코머 노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낙면의 작은 뭉치인 얼룩이 많거나 적을 때도 있어 생산 공정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, 생산량은 월 10~20t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.

“가프리스”를 사용한 직물에는, “가프리스”는 경사나 위사에 사용하고, 면 70%·렉셀 20%·실크 10% 혼방 소재인 “엑산즈”와 교직(交織)한 것을 2004년부터 판매하고 있다.

이 직물은 실크 산텅[silk shantung : 중국의 산둥(山東, shantung)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작잠견(柞蚕繭, 야잠견이라고도 함)에서 손으로 뽑은 슬럽사]

의 표정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표정을 자아낸다. 에콜로지(ecology)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상품이므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다. ♣